

화재 현장 간 윤·한 '열차 대화'...갈등 '조기 진화' 공감

대통령 권유에 전용열차 동승...민생행보 하며 통합 시도 한, 90도 숙여 인사 "대통령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23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날 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동시에 이곳을 찾은 게 계기가 됐다. 양측 모두 오전 일정을 조정하면서 전격적 만남이 이뤄졌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속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갈등의 조기 진화를 위한 접점을 찾은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화재 현장을 함께 살펴봤다. 현장 점검에 앞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어깨를 톡 치고, 눈보라 속에 15분을 기다린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점검을 마친 뒤 상경할 땐 윤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 전용열차 편으로 함께 돌아왔다.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최근 갈등 국면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최대한 오해가 남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갈등 국면은 김경울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과 사천 논란, 한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발언' 등을 둘러싸고 조성됐다고 한다.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는 윤 대통령과 '귀경길 열차 대화'를 마치고 나온 한 위원장의 공개 발언에서 뚜렷이 묻어 나왔다.

서울로 돌아온 한 위원장은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하는 대신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대적점에서 대립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한 위원장은 또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길게 나눴다"라고도 했다. 양측이 갈등 국면으로 비졌던 사안들을 털어내고 앞으로 함께 협력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이처럼 화해 무드가 조성된 건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 김경울 비대위원의 마포를 공천을 언급하며 갈등이 촉발된 지 엿새 만이다. 이후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취지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친 21일로부터는 이틀이 지났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3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인사회 이후 20일 만이다.

그동안 당과 대통령실에서는 4월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분열은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를 풀기 위한 양측간 물밑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수라는 인식 아래 회동 성사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 왔다.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의중이 알려지고, 일부 인사들을 통해 전파되면서 사태를 되레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 측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이 전격적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서로 일정을 인지했던 만큼 이번 사태가 확정으로 치닫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양측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은 갈등 '봉합'의 상징적 장면으로 인식됐다. 재난 앞에서 당정이 협력해 민생 행보를 한다는 명분도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난 대응차 찾은 민생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소통의 시작을 위한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핵심 당직자도 "만남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접점을 찾아가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한 갈등'에 김경울 거취 주목...비대위원 유지 놓고 당내 이견

"총선 나가려면 사퇴가 맞아" "압박에 굴복 안된다" 반발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경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당내 관심사로 23일 떠올랐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 갈등 양상은 대통령실이 김 위원장 서울 마포를 출마와 관련한 '사천(私薦) 논란'을 이유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천 논란'은 표면적 이유일 뿐, 김 위

원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한 위원장의 태도가 실질적인 사퇴 요구 이유일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히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 빗댄 김 위원장의 발언이 대통령실을 자극했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위원도 전남 비대위 회의에서 "내 거친 언행이 여러 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며 정제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간 논란을 촉발한 각종 발언에 대한 사과성 발언인데, 다만 사과의 방향은 김 여사 관련 발언보다는 대구·경북(TK) 의원들에 대해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적혔다.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한 본인 입장에 대해선 "변한 게 없다"고 말했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위원 거취 정리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출구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거취 정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이 김 위원 마포를 출마 발표를 두고 당 지도부 및 핵심 관계자들과 사전 상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선 김 위원에 대한 압박이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간 인신공격·비방 엄격 조치"

임혁백 민주 공관위원장 입장문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예비후보들 간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1월 22일자 1면)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관리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관위원으로서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

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은 후보 컷오프(경선 배제)를 앞두고 고소·비방 등을 이어가 민주당 승리를 위한 '원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 내부 진흙탕 싸움이 심화하면 광주·전남 표심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 민주당 전체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일본 '조선인 추도비' 철거 위기에 "우호관계 저해 않아야"

외교부는 일본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철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이번 사안이 양국간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에도 계속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언론은 군마현 당국이 조선인 추도비를 지난달까지 철거해 달라는 요구에 시민단체가 응하지 않자 대신 철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일본 시민단체 '군마 평화유족회'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4월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조선인 추도비를 설치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일본어·한국어·영어로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적혀 있다.

2024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 참여 수행기관 모집공고

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개선과 혁신 공간 창출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주변 시세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공간 제공
- 국비지원 : 사업당 최대 70억원을 4년간 연차 지원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사업

- 사업내용 : 산단 내 유희 인구가 많고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하여 특화 디자인 등을 반영한 미관거리 조성
- 국비지원 : 센터당 최대 20억원을 3년간 연차 지원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 사업내용 : 청년친화형 복합문화(복지·문화·편의시설 등) 및 혁신지원(창업보육, 기업지원 등) 기능이 집적화된 센터 구축
- 국비지원 : 센터당 최대 40~60억원을 4년간 연차 지원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유인을 위해 노후화된 개별 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
- 국비지원 : 1개 단지당 2억원(20백만원 x 10개사)

2.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사업은 관할 지자체만 해당)

지원대상

국가·일반·농공 노후 산업단지* 및 산단 대개조 지역 등

매칭비율

수도권 60%, 비수도권 30% 이상 대응 자금 매칭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매칭 비율 30%로 동일)

지원조건

'24년도 1차 공모는 패키지사업(4개 사업 중 2개 이상 선택지원)만 지원 가능 (* 향후 잔여 사업에 대해 개별공모 예정)

3. 공고·접수 및 절차

공고기간

2023. 12. 4(월) ~ 2024. 2. 16(금) (75일간)
* 1차 공모 종료 후 잔여 예산에 대하여 '24. 3월 이후 추가 공모 예정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접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공고문 내 연락처 참조)

접수방법

전자문서, 이메일, 우편(기간 내 도착에 한함), 방문 접수 모두 가능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 공지사항 참조